

농번기철 앞두고 인력부족 '발 동동'

코로나19 여파 외국인 노동자 턱없이 부족

인건비 상승 불구 농촌일 기피 일손 못구해

본격 농번기철이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면서 농촌현장이 애가 타고 있다.

26일 전남 시·군에 따르면 4월 중순부터 양파와 마늘 수확이 시작되고 4월 중순과 하순부터는 고구마와 고추 정식, 5월 중순부터는 모내기과 보리수확 등 1년 중 가장 바쁜 농사철이 이어진다.

이로 인해 5월 이후에만 전남 농촌지역에는 모두 11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현장 인력은 예년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종 밭 작물 정식과 수확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농촌현장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춘절(음력 1월1일)을 맞아 고향을 방

문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입국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태국 등 동남아 근로자들은 지난 2월 말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간 뒤 입국이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고구마의 경우 예년이면 30명이 투입됐던 작업이 15명도 투입되지 못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4월 말이면 끝날 고구마 아주 심기가 올해는 5월20일은 돼야 끝날 전망이다.

또한 5월부터 다가오는 무안 등지의 양파 수확시기 인력난은 더 가중될 우려가 크다. 현재 벌써 인건비가 20%가량 상승했고, 이마저도 대도시인 광주에서 어렵게 데리고 오는 실정이다.

인건비 폭등도 문제지만 인력부족으로 양파·마늘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고 장마를 맞아 농사를 망칠 가능성까지 있어 인력 수급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고흥과 장흥, 나주, 보성 등 전남 4개 자치단체에서 단기취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출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업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121명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입국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인력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관리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올해는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말이 놓은 일은 많으나 인력이 없어 광주 등 외부에서 수급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군, 농협 등 늘어난 도시 실직자를 농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력업체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련공 상시 공급을 위한 영농

작업반도 확대하고 자치단체, 유관기관등과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1개 시군의 62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농기계 임대료 50% 이상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농촌현장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코로나19로 늘어난 도시 실직자를 농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인력업체와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혜덕 기자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들 이번주 첫재판 받는다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의무 없어 불출석 가능성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조씨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조씨, 조씨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부(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3명이다.

다만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조씨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죄명을 적용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협박편지를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강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월~12월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 'n번방' 관련 사건이 조씨가 포함된 '분류 재판'에 합쳐져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이군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의 사건을 재배당해 조씨 사건에 병합했다.

조씨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강씨의 재판도 조씨 재판에 합쳐질 수 있다. 강씨는 총 17회에 걸쳐 학생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일단 강씨의 3회 공판기일은 5월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됐다.

최영범 기자

판결

역주행 음주사고 외제차 운전자 2심도 집유

법원, 검사 항소 기각...1심서 집유 2년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외제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함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정면충돌했다"며 "A씨의 행위가 극히 위험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태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형사위로금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벌위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9일 오전 5시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방면에서 남악리 방면으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화물차 운전자 B씨(34)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탈의실 몰카등 촬영·유포5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강화된 기준따라 무관용 원칙 적용'

광주지검 여성이동범죄조사부는 성착취 영상물 사범 5명을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8월17일부터 12월2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PC방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3대 설치한 후 여성직원 14명의 탈의 장면 등 372회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A씨(36)를 검거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피해자 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1월29일부터 3월3일까지 아동 성착취물 32개를 소지하고, '조닝 사진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10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생 B군(16)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초등학생들에게 총 4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사범 C씨(29)도 구속기소됐다.

중학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한 10대와 나체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50대도 각각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성착취 영상 제작사범 1명을 검사가 직접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자 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공분과 엄벌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성착취 영상물 사범은 나이, 전과, 자백 여부를 불문하고 엄벌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범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